

민천주보

제2623호

2020년 6월 28일 |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교황기(旗)〉

입당송 |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 2열왕 4,8-11.14-16

화답송 | 시편 89(88),2-3.16-17.18-19(◎ 2ㄱ)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

제2독서 | 로마 6,3-4.8-11

복음 환호송 | 1베드 2,9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복음 | 마태 10,37-42

영성체송 |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이 주의 성경쓰기표

요 일	28 (주일)	29 (월)	30 (화)	1 (수)	2 (목)	3 (금)	4 (토)
성경 / 장	로마 3,9-3,31	4,1-4,12	4,13-4,25	5,1-5,21	6,1-6,14	6,15-7,6	7,7-7,25
확 인							

나의 십자가는?

한 교리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사순 시기에 대한 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당황한 교사가 다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또 답을 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개구쟁이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교사는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그러자 그 친구가 엄청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붙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의미 없는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의미를 잊고 바라본다면, 십자가 위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과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붙어 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친구의 대답은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실제 내 주변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실에 걸려 있는 십자가, 책상 한구석에 서 있는 십자가, 차량에 붙어 있는 십자가, 룸미러에 달려 있는 목주에 딸린 십자가 등.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장식 소품과 같이 거실을 예쁘게 꾸미고자 달아 놓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사고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부적과도 같은 차량의 십자가에서, 주머니 혹은 가방에 습관처럼 지니고 다니는 목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에 의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닌,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과정이 아닌, 당신이 직접 지고 살아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먼지가 쌓이고 때가 낀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느껴봅시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도구여야만 합니다. 바로 하느님께로 향한 이 희망의 목적지가 없다면 나의 십자가는 견뎌내고 지나가야 하는 상처의 상징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더욱 가까워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박규남 마티아 신부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영성지도

이주의 암송구절



주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시어

악인도 선인도 살피신다. (장언 15, 3)

마르코 복음서 I - '최초'의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마르코 복음서는 불과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회 내에서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분량이 많지 않고, 내용도 풍요롭지 못한 데다가 몇몇 이야기들은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초대 교회 시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비교적 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관(共觀)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고, 또 마태오와 루카 저자가 마르코 복음서를 토대로 자신들의 복음서를 저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복음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행적과 가르침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엮어낸 최초의 복음서인 마르코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의 형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역사와 신학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복음서 본문에서는 저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마르코”라는 인물을 저자로 지목합니다. 사도행전(12,12,25; 15,37; 15,39)과 바오로 서간(필레 24; 콜로 4,10; 2티모 4,11), 그리고 베드로 1서(5,13)는 마르코라는 인물을 언급하는데, 만약 이들이 모두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바오로 사도의 선교 활동을 도운 협력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마르코가 지금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데에 회의적입니다. 오늘날의 마르코 복음서 연구에서는 역사상 실제 저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음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저자의 모습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스어로 복음을 기술한 저자는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등장할 경우에, 항상 그리스어로 다시 번역을 해주고(마르 3,17; 5,41; 7,11,34; 14,36; 15,34), 또 이방인에게 생소했을 법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7,3-4; 14,12; 15,4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마르코 저자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에서 기원전 70년경

에,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갈릴래아”와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두 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복음서를 전반부(1-10장)와 후반부(11-16장)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로 나누기보다 셋으로 구분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갈릴래아”에서의 예수님(1,1-8,26); 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의 예수님(8,27-10,52); 3.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11,1-16,8).

첫 번째(“갈릴래아”) 부분과 세 번째(“예루살렘”) 부분은 두 번째(“길”) 부분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전합니다. 갈릴래아에서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악령들을 쫓아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항상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십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수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늘 함께하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돌변한 군중들의 함성과 모욕 속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비참하게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첫째와 셋째 부분 사이에 위치한 “길” 단락은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래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와 셋째 부분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이들이 그에게 호의적인 군중이거나 아니면 그의 적대자들이었다면, 중간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당신을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구성을 통해서 저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마르코 복음서가 그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다음 주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그리스도와의 만남

“이번엔 정말 성경 통독에 성공해야지!” 하며 성경을 펼친다. 창세기. 익숙한 내용이다. 이미 몇 번을 읽었다. 내 성경에 유일하게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창조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탈출기. 분량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아직 읽을 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긴박함이 느껴진다. 레위기. 규정이 자꾸만 나온다. 복잡해진다. 지루해진다. 민수기, 신명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책을 덮는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마주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탈출기를 지나 열심히 읽어보려 했지만, 역사서는 고사하고 모세오경(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조차도 완독하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지루한 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면 마음 한 켠에 부담만 남아있다. ‘읽어야 하는데...’ 하며 미루고 있는 마음의 짐. ‘너무 길어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집중력 감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책 한 권을 펼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전개 구조를 따라가게 된다.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발단’부터 ‘전개’, ‘위기’를 거쳐, 이야기의 주제가 드러나는 ‘절정’을 지나 ‘결말’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구조에 빠져든다. 성경이 소설이나 희곡 같은 문학 장르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의 ‘발단’을 넘어 ‘전개’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책을 덮을 때가 많다. ‘절정’의 내용을 알고 나면 이만큼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책은 없을 텐데 말이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인 하느님의 말씀이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인류의 구원을 약속한 계약이다. 계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옛 계약’을 뜻하는 구약(舊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계약’인 신약(新約)으로 나뉜다. 두 시대의 계약(약속)의 역사는 우리가 자주 열어봤던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인간의 구원의 역사(救世史)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미사 때마다 듣고 있다. 성경이 지루해 열어볼 엄두도 못 낼 때가 많다고 했지만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에만 손때가 질었던 구약성경도 주일 제1독서를 통해서 읽고 나면 묘하게 복음의 내용과 맞물림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그렇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며 같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발단과 전개, 위기와 절정을 거쳐 결말의 줄거리를 주일 복음을 통해 매번 요약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매 주일 제1,2독서와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대서사시를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climax)를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다. 성경의 줄거리를 알았다. 그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정의 줄거리를 자꾸만 잊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책인 성경을 두고 ‘악마의 편집’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어,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혹은 자신의 집단의 교주임을 짜 맞춘다. 성경은 비유로 쓰여 있다고 속이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현혹한다. 성경은 언약과 성취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에 집중해야 한다며 헛된 기대를 심는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 시작을 잘 해석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 모든 책략 뒤에는 자신들의 교주를 하느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의 중심이자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뒷전으로 미룬다. 아니, 미루다 못해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전에 성경의 줄거리를 자주 들어왔다. 또한 성경의 중심인물과 그가 이루는 역사의 절정을 우리는 마음 안에 살아있는 생생함으로 만나 왔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성경책을 열어보자. 성경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진한 만남을 이루어줄 것이다.

교구 행사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



19일(금)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교구 사제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서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제들’에서 감사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의 각 주제를 낭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예수 성심 호칭기도를 바치고 분향과 성체 강복을 통하여 성체현시 안에서 참회와 쇠신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였다. 이어지는 미사에서 정신철 주교는 “특별히 오늘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며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졌다”며, “더욱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사제들은 이날 기도과 미사를 통하여 참회와 쇠신을 다짐하고, 마음을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안내

교구·성직자 쇄신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06.19)

교구 쇄신위원회

- 교구사제 위원: 이용권 신부(총대리-위원장), 김일회 신부(사무처장), 안규도 신부, 김영욱 신부
- 수도자 위원: 신호준 신부(가르멜 수도회), 김현웅 신부(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신인미 수녀(노틀담 수녀회), 강선주 수녀(성가소비녀회)
- 평신도 위원: 황규철(평협회장), 심교린(아주대 교수), 박유미(사회학자), 최정철(인하대 교수), 김형환(전 본당 사목회장)

성직자 쇄신위원회

- 당연직 위원: 이용권 신부(총대리), 김일회 신부(사무처장-위원장), 민영환 신부(성직자 국장), 김상인 신부(미래사목연구소장)
- 추천 위원: 안규도 신부, 김영욱 신부, 박희중 신부, 장동훈 신부, 신동휘 신부

교구 행사

부천2지구 4개본당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



부천2지구 4개 본당 중1동(=주임 장동훈 빈첸시오 신부), 중2동(=주임 오용호 세베리노 신부), 원종2동(=주임 김성수 스테파노 신부), 상3동(=주임 박요한 요한 세례자 신부) 성당이 ‘코로나19 위기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교회 밖 지역 사회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상3동 본당의 제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성금 480만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효민 시문 신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 16가정에 전달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3동 본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3가정을 추가로 선정해 가정당 월 20만원의 후원금을 1년간 결연후원 형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130여 가정에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2차례 보급했으며, 희망 상자, 긴급생계비지원, 비대면 도시락 제공, 선별진료소 AAC 보급 등 코로나19 특별사업을 전개해 왔다.

교구 안내

교구 상설고해소

- 상설 고해성사: 매주(수) 15:00~17:00 답동 주교좌 성당

교구 안내

성 바오로 주교좌 성당 봉헌 축일 (06.30)

6월 30일(화)은 인천교구 성 바오로 주교좌 성당 봉헌 축일입니다. 우리 교구는 이날을 대축일로 지내오니, 이날 미사(로마미사경본 977쪽~983쪽 성당 봉헌 공통 참조)와 성무일도(성무일도IV 1605쪽 성당 봉헌 축일 공통 참조)는 성당 축성에 대한 것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 성지 조성 후 후원 회원님의 이름을 성전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조금 ‘특별한’ 첫영성체 교리

안녕하세요. 저희 효성동 본당(=주임 최상진 야고보 신부)은 조금 ‘특별한’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고민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하고 계실 여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교리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3월에 첫영성체 교리 일정을 처음으로 기획했던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적어도 두 달 후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바이러스는 초반기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도 수도권 내에서 꾸준히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주 혹은 두 주씩 계속 일정을 연기하며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곱여 차례 계획을 수정했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2학기교로 일정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2학기가 된다고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진다는 보장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로 연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틀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박문초등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ZOOM)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기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수녀님의 생생한 나눔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지역까지 파고들고 있던 터라 이 새로운 도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었습니다. 주임신부님께 상의를 드렸고,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추이를 지켜보며 우선 2주간의 교리 수업을 화상 수업으로 실시하고 7월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관건은 아이들이 화상 수업용 기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첫영성체 교리를 신청한 16명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설문지를 돌린 결과 화상 교리 수업을 찬성하셨고, 모두가 수업용 기기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영성체 대상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임에 공감해주셨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틈틈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6월 20일(토)에 있었던 사전 시범 운영 수업에서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음에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생한 표정 안에서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금 ‘특별한’ 첫영성체 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줄곧 싸워왔던 것은 제 안의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게 나아’, ‘뭘 또 일을 벌리려고 해, 그냥 했던 대로 하자’라는 포기과 타협, 안일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변해 있었고, 이 변화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이 불확실성 안에서도 꼭 해야만 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저를 이끌어주셨고, 갖가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효성동 본당은 이렇게 조금 ‘특별한’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합니다. 첫영성체 준비라는 이 시간을 귀이 여기는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시작된 여정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 소화데레사 수녀 · 효성동 성당 전교수녀, 노틀담 수녀회

교구청 알림

◆ 지구를 위한 미사

때·곳: 7/9(목) 11:00 사회사목센터 4층
☎ 환경사목부 032-765-7255

◆ '평화의 시선' 월례미사와 특강

때·곳: 7/1(수) 19:00 노동자센터
주제: 한국 원폭피해자가 들려주는 평화이야기
강사: 이기성(한국원폭피해자)

◆ 한국틴스타(Teen STAR) 교사양성 워크숍-인천

때: 8/29(토), 30(주일),
9/5(토), 6(주일) 9:00~17:00
곳: 사회사목센터
교육비: 1인-16만원
대상: 청소년 성교육 관심자, 신부, 수녀, 교리교사
마감: 8/14(금) 15:00 (선착순 30명)
당일 접수 불가
☎ 생명사랑운동본부(틴스타) 032-763-9595

교육 | 피정

◆ 교구 예비신자 피정

때: 3차 8/8(토) 9:30~15:30
곳: 교구청 복자 이 안나 홀 / 교구 공문 참조
☎ 노틀담교리교재연구소 010-2123-6319

◆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효상단식 피정: 7/30(목)~8/2(주일)
성경완독 피정: 7/17(금)~25(토), 8/4(화)~12(수)
☎ 010-3340-0201

◆ 젊은이 여름 피정 프로그램

평창 쉼 피정(미혼여성): 7/17~19 [4만원]
젊은이 몸신학 피정: 8/7~9 [6만원]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010-5313-0241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7/15~19, 7/29~8/2, 8/5~9
예수마음기도 [8박 9일]: 7/15~23, 8/5~9
이나시오 영신수련: 7/15~23, 7/29~8/2
에니어그램 기본과정: 7/24~26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 010-9099-2337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 2일: 7/4(토)~5(주일)
3박 4일: 7/27(월)~30(목) / 8/1(토)~4(화) 청년
8박 9일: 9/15(화)~23(수)
40일: 10/6(화)~11/14(토)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미사 | 행사

◆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미사

때·곳: 7/3(금) 11:00 사회사목센터 4층 강당
봉사하며 선교하시고자 하는 분들 초대
☎ 010-6327-3427

◆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신앙특강

때: 7/4(토) 미사 11:00, 특강 13:00
곳: 사회사목센터 ☎ 032-761-3992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미사

때·곳: 6/29(월) 담동 주교좌 성당
12:30 찬미 체나콜로 기도 후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합본집, 묵주, 메세지

◆ 사도들의 모후 모임(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7월

때·곳: 7/3(금) 13:00~16:00 사회사목센터 401호
강사: 김태광 신부(강의, 고해성사, 미사)
☎ 010-3809-0200

모집 | 일반

◆ 도화동 성당 사무·관리 직원 모집

자격: 시설관리 유경험자
제출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격증 유·무 기재
마감: 6/28(주일) ☎ 032-763-1961

◆ 수어교육

일정: 7/2부터 주·2회 [총 15회] / 수강료: 6만원
곳: 사회사목센터 1층 장애인연합회
☎ 010-9883-2551

◆ 글라렛 선교수도회 심리 상담

심리상담(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곳: 부천시 심곡본동 608-7 / 상담료: 1회-5천원
☎ 010-7794-6031

◆ 미사 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6(월)부터 [10주] ☎ 02-338-3793
주최: 아퀴나스 오르간아카데미

◆ 가정호스피스 안내(인천성모병원)

대상: 말기 암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자
담당: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032-280-6201~3

◆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국내 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들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 모집
☎ 02-764-4741~3 / www.holyfac.or.kr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설명회: 7/4(토) 14:00
여름진학캠프: 8/7(금)~9(주일)
대상: 초6, 중1, 2 ☎ 054-338-0530

◆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8/17~28
학교설명회: 7/11 14:00 본교 시청각실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학교설명회 참석 및 입학
곳: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 061-432-9241

◆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2차 모집

“인간 삶과 문화예술에 담긴 가톨릭 진리와
영성을 본격 연구하는 석사학위과정”
문화영성전공: 음악과 미술,
건축과 역사, 가톨릭 철학과 영성
사목영성전공: 사목에 필수적인 사회복지와 상담,
조직경영과 갈등관리, 생명, 가톨릭 영성
곳: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
접수기간: 6/29(월)~7/17(금)
면접전형일: 7/23(목) 17:00 예정
- 우수 신입생 소정의 장학금 혜택
추가정보: 네이버 “문화영성대학원”
<http://gcs.catholic.ac.kr>
☎ 02-2258-7814

◆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 대학
가톨릭 지도자 추천
(간호, 심리, 사회복지, 경찰행정 등)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 입학상담 053-850-2580

순례 | 기타

◆ 국내성지순례

7/8 원주교구: 대안공소(미사) 원동 주교좌 성당,
강원감영, 용소막 성당,
묘재, 배론성지, 풍수원 성당
회비: 3만 5천원(조, 중식 제공)
사당역 출발
☎ 김천래 바오로 010-9200-3532

성소모임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곳: 7/5(주일) 9:30 서울 돈암동 본부
☎ 010-9937-0901

◆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때·곳: 7/12(주일) 14:00 서울본원
☎ 010-9353-1773